

《행복아, 어서 와》 활동지



시를 읽으며 행복한

의 활동지

《행복아, 어서 와》를 읽기 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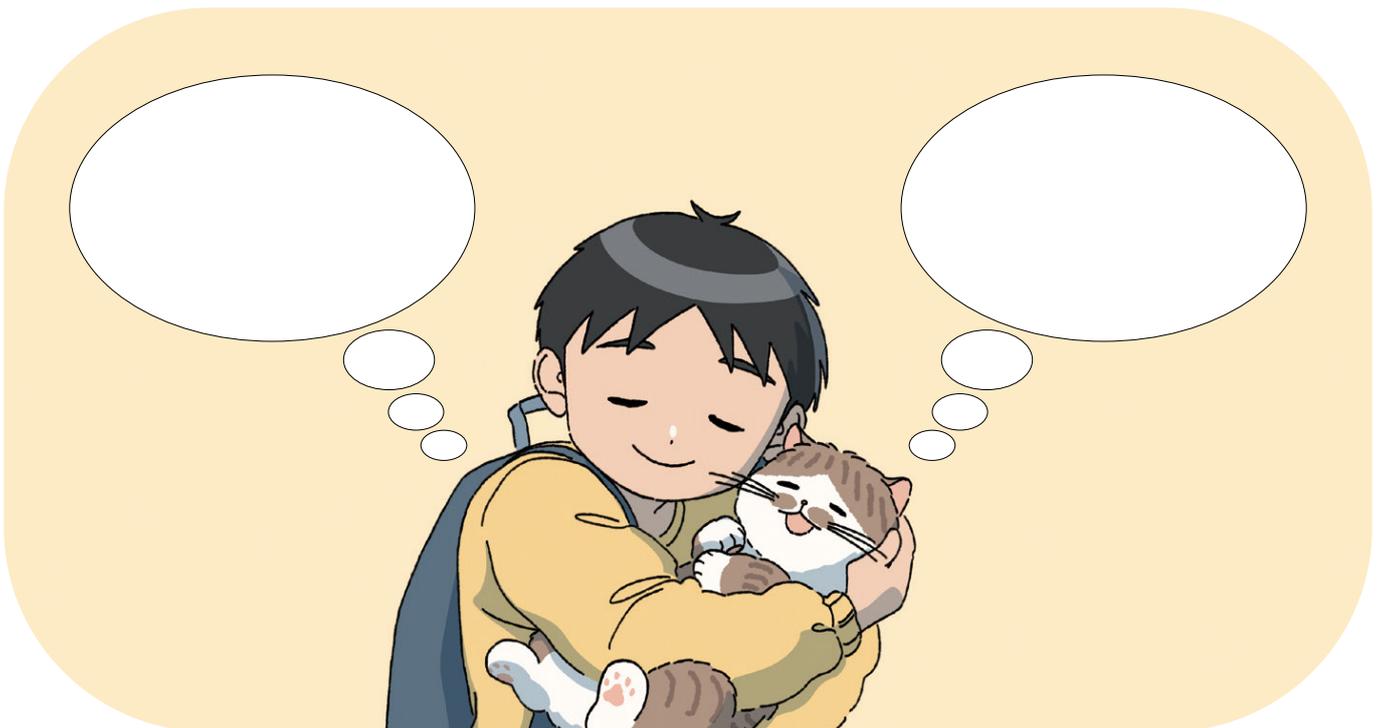


1. 《행복아, 어서 와》 제목에서 ‘행복’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행복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나는 행복이 _____ 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행복을 느낀 적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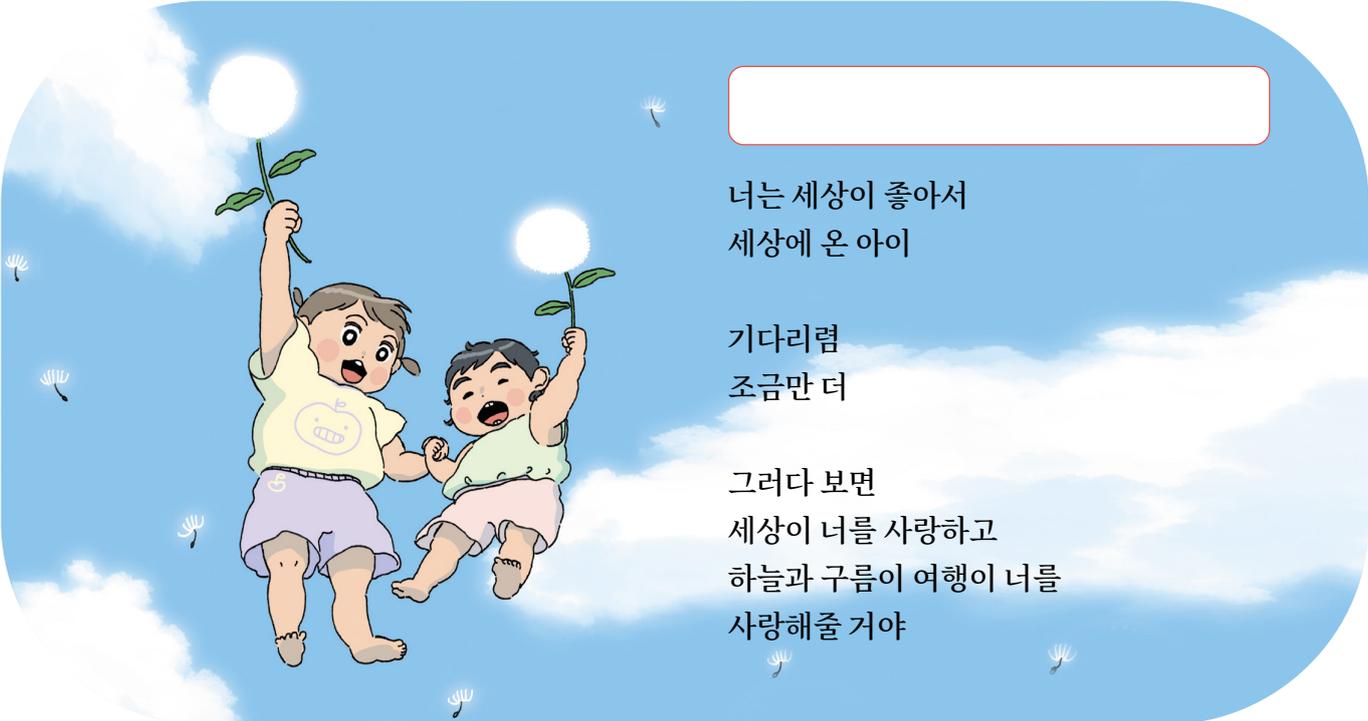
2. 책 앞표지에 등장하는 인물과 고양이를 보고, 이들의 속마음을 짐작해서 써 보세요.



3. 차례에 있는 제목을 보고, 내용이 궁금한 시에 모두 동그라미를 치고 궁금한 이유를 써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	눈부신 세상	딸아이	좋은 날	시
행복	예쁜 너	지지 않는 꽃	별리	첫눈 같은 기쁨
서로가 꽃	그래도	너에게 감사	맑은 날	소망
아버이날	고백	흔들리며 어깨동무	사랑을 보낸다	

4. 뒷표지에 나온 다음 시를 읽고 시의 제목을 짐작해서 써 보세요.



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온 아이

기다리렴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고
하늘과 구름이 여행이 너를
사랑해줄 거야

《행복아, 어서 와》를 읽는 중 활동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하루 종일 장터에 나가
지친 아주머니 할머니들
() 낮은 말소리 싣고
지는 해 붉은 노을 속으로
돌아가는 버스다

아기의 숨소리가 너무 고와서
아기의 숨결이 너무 향기로워서
엄마는 그만 아기보다 먼저 잠이 들고
아기는 잠든 엄마 곁에서
() 웃고 있다

네 가슴의 나비
()
너를 데리고
좋은 세상으로
가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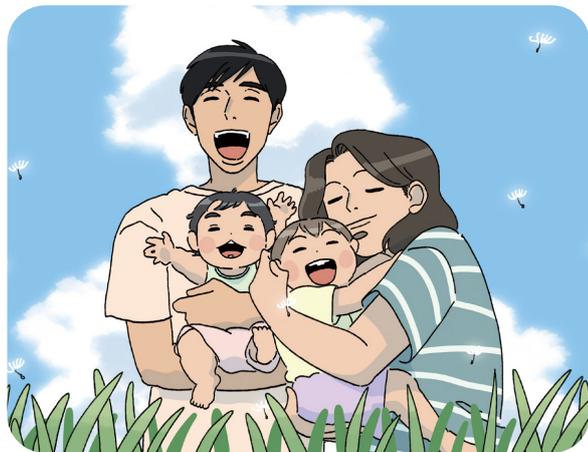
<보기> 방글방글 팔랑팔랑 두런두런

2. 34쪽 <그건 시간 문제>에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고
꽃이 너를 사랑하고

하늘과 구름과 여행이 너를
사랑해줄 거야

그건 시간 문제야
암 시간 문제고말고
너 같은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주겠니.



3. 다음 시에서 ‘딸아이’를 무엇에 비유했는지 한 글자 낱말로 써 보세요.



딸아이

너를 안으면 풀꽃 냄새가 난다
세상에 오직 하나 있는 꽃,
아무도 이름 지어 주지 않은 꽃,
네게서는 나만 아는 풀꽃 냄새가 난다.

4. 다음 시에서 의인법을 사용하여 ‘눈’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선을 이어 보세요.



눈이라도 3월에 오는 눈은
오면서 물이 되는 눈이다
어린 가지에
어린뿌리에
눈물이 되어 젖는 눈이다
이제 뇌들 차례야
잘 자라거라 잘 자라거라
물이 되며 속삭이는 눈이다.

① 어린 가지에 어린뿌리에
()이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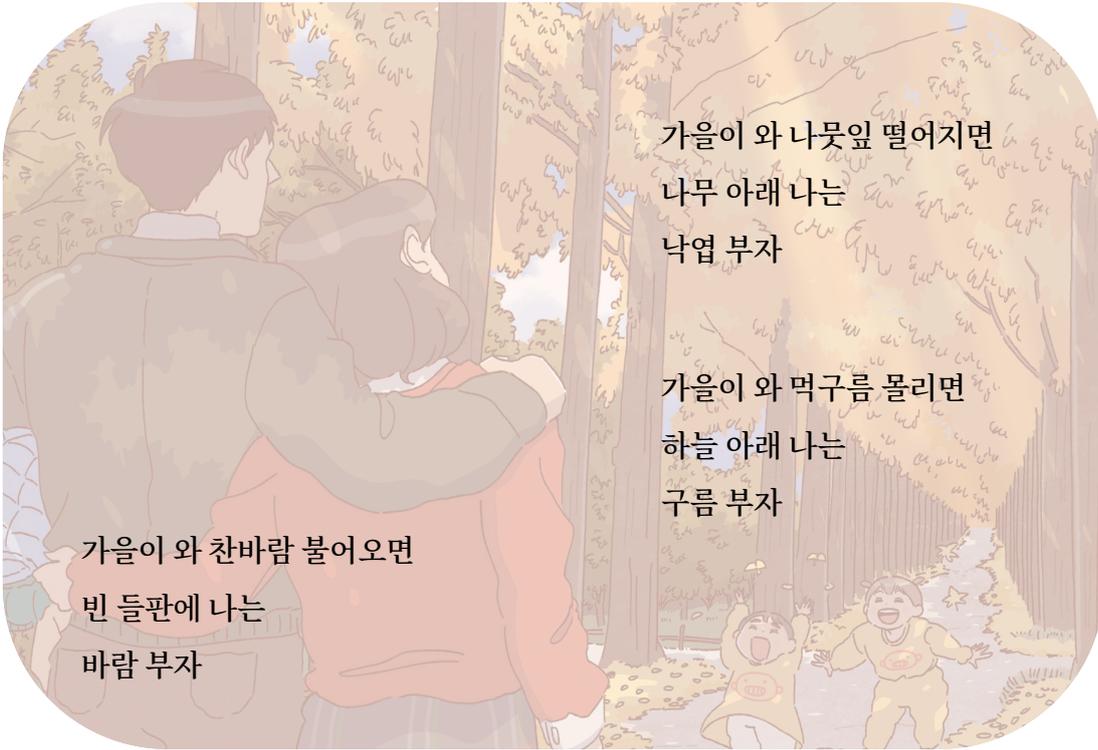
● 속삭인다

② 잘 자라거라 잘 자라거라
물이 되며 (). ●

● 눈물

✓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

5. 53쪽 <가을이 와>를 감상하고, 시인처럼 가을이 오면 나는 어떤 부자가 되는지 생각해서 써 보세요.



나는 가을이 오면 _____ .

6. 다음 시의 제목을 바꿔 보고,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이유를 써 보세요.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틔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바꾸고 싶은 제목

<시> →

내가 이 제목으로 바꾼 이유는 _____ .

7. <행복 2>를 감상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친구'를 소개해 보세요.

행복 2

어제 거기가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너.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나의 친구



8. 다음 시를 감상하고, 시에 표현된 심상으로 알맞은 낱말을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오월 아침

가지마다 돌아난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눈썹이 파랗게 물들 것만 같네요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금세 나의 가슴도
바다같이 호수같이
열릴 것만 같네요

돌담불 사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있으려면
내 마음도 병아리 떼같이
종알종알 노래할 것 같네요

봄비 맞고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져보면
손끝에라도 금시
예쁜 나뭇잎이 하나
새파랗게 돌아날 것만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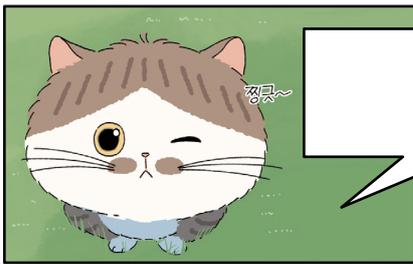
- 시각적 심상 → 눈썹이 () 물들 것만 같네요
- 청각적 심상 → 내 마음도 병아리 떼같이 종알종알 () 할 것 같네요

✓심상 시의 언어에서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
시각적·청각적·후각적·미각적·촉각적·공감각적 심상

9. <별리>를 감상하고, 이 시에 어울리는 4컷 만화를 완성하려고 해요.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상상해서 써 보세요.

별리

괜찮아 괜찮아
 곧 만날 거야
 우리 곧
 만나게 될 거야.



10. <어버이날>을 감상하고, 시의 뒤를 이어 써 보세요.

어버이날

고마워요
 그냥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고마워요

고맙구나
 그냥 네가 내 아들인 것이
 고맙구나.



《행복아, 어서 와》를 읽은 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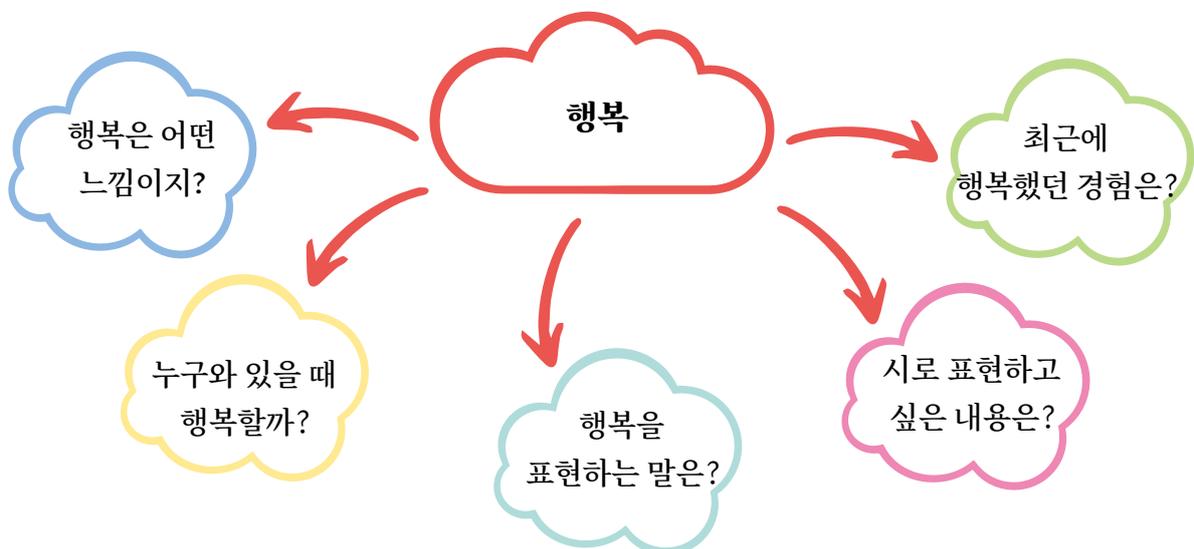
1. 책에 나온 시 중에서 한 편을 골라 낭송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읽어요.
노래하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읽어요.
시의 분위기와 느낌을 살려서 읽어요.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요.



2.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를 써 보세요.

① 내가 시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② 시를 쓸 때, 심상을 넣어 보세요.

- 시각적 심상 → 행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
- 청각적 심상 → 어떤 소리를 들으면 행복할까?
- 후각적 심상 → 행복은 어떤 냄새가 날까?
- 미각적 심상 → 행복은 어떤 맛일까?
- 촉각적 심상 → 행복은 어떤 느낌일까? 따뜻할까, 포근할까?

③ 한 편의 시를 완성해 보세요.

